



3면

"지금, 담대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음 2월 27일) 제298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 규제개혁위 열고
올해 추진계획 시행

역점사업 규제개선
과제 수시로 발굴
불합리 행정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강화 등

전북도가 올해 모든 분야의 규제 애로를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개선 활동에 나선다.

도는 기업 및 도민 등이 느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전북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62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178건을 개선했다.

중앙부처 수용률 28.3%로 전년도 대비 16.5% 향상했고, 81건의 규제해소 사례 중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모든 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한다.

특히, 전북도 역점사업 및 국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규제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우선,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시·군 및 각 분야 전문가와 매월 운영한다. 이에,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등록규제를 대상으로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완화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전북도 규제 혁신은 도민 참여형 규제과제 상시 발굴·개선,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등 3분야에서 추진한다.

먼저, 새만금 농생명산업 등 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4차산업, 에너지 전환, 지역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국가 주요시책과 연계한 테마과제를 분기별로 발굴한다.

또한, 도민의 규제개선 과제 참여 확대를 위해 도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공모를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www.sirring.go.kr)도 상시 운영한다.

규제혁신 도민소통창구(규제개혁위원회 민관협의회, 도민참여단)을 적극 운영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한 도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차기법 규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산으로 기업의 창의를 장려하고, 도민의 생활 속 불편 등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도민·기업의 요청으로 추진하던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에서 선제적으로 등록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 불필요·불합리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공유 및 전문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장려, 규제혁신 경진대회 참가 등으로 규제혁신 문화를 적극 확산한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본사 인사

▲이재춘
임 : 국장
명 : 지방부 익산주재

(3월 29일자)



전북도는 28일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산단에 ㈜덕산테크코피아의 '이차전지 전해질', ㈜배터리솔루션의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 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차전지 소재 제조기업 2곳, 새만금 산단에 '동지' | 덕산테크코피아·배터리솔루션, 올해 공장 착공

새만금 산단에 2차전지 소재 생산 기업 2곳이 동지를 틀 예정이어서 전기차로의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28일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산단에 (주)덕산테크코피아의 '이차전지 전해질', (주)배터리솔루션의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종모 새만금개발청장,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 황철호 군산시장, 조현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수완 (주)덕산테크코피아 대표이사, 김운혁 (주)배터리솔루션 기술개발총괄책임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덕산테크코피아는 올해 11월 새만금 산단 9만3,000㎡ 용지에 74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90명을

채용한다. 새만금 공장이 가동되면 공급량 부족으로 단가 인상이 진행 중인 국내 공급망의 안정화는 물론,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 기업은 지난 2008년 설립된 덕산그룹의 계열사로,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및 반도체 소재, 이차전지 전해액 첨가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삼성전자 우수 협력사로, 2019년에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배터리솔루션은 올해 10월 새만금 산단 16만6,000㎡ 용지에 27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24명을 채용한다.

이 기업은 이차전지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만금 공장에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 용량·수명·안정성 등이 향상된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공정을 거친 다음, 제품 양산화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두 기업은 '새만금 미래차 협력 지구(클러스터)'에 전기차와 이차전지 기업들의 집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과의 연계와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해 (주)비엠에스 등 연이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생산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새만금 미래 자동차 산업의 패카로 성장하고,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식 도 정부부지사는 "(주)덕산테크코피아와 (주)배터리솔루션이 새만금

공장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새만금의 대표기업으로 성장 하길 바란다"며 "고밀도 및 이차전지 기업들의 집적화로 미래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에서 두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완 (주)덕산테크코피아 대표이사는 "새만금 투자를 통해 당사의 성장과 함께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운혁 (주)배터리솔루션 기술개발총괄책임은 "새만금 투자를 거점사업 초격차 수준의 이차전지 핵심 양극재를 상품화해 국가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에스지(ESG) 실천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탄소중립 실현 준비 '착착'

전북도, 기후위기 대응 기본조례 내달 중 제정기로

전북도가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에 맞춰 도 자체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조례 제정 등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차질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위기 대응체계 정비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

진을 위해 25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기후변화대응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기본계획과 연계해 법정계획인 도 맞춤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 수립 중에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 시행에 민전을 기할 것"을

관계관에 특별 지시했다.

송 지사는 또 "탄소중립은 인식확산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도민들에게 우리도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준비상황, 도민 참여방안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도의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자 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2023년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2030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4월중 제

정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도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전라북도 203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주도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전담기구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주체인 도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므로,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